

現代의 思惟와 人間 理念

人間 解釋의 現實形態(3)

金基錫

現實主義가 어떠한 만히 自然이나 物質이나를 根源的 世界라고 하여 내어 세우는가를 보라. 이것은 觀念論이 目的論에 이끌려 저즈른 過誤를 現實主義가 因果論에 붙잡혀 되푸리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自然이나 物質은 이른바 因果性에 잇서서 說明되야 마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타고 하여 이 因果性의 世界만을 眞實한 實在라고 하고 그것과 마주 서는 世界 또 그것을 예싸는 世界, 이를테면 目的性의 世界 表現性의 世界 限定性의 世界 가튼 것들을 모조리 實在의 世界로 부터 내어 쫓아서 안된다. 現實主義가 依然히 因果論에 머물러 잇는 한에서 그것이 自然의 世界를 說明은 할지언정 生의 世界 理性의 世界, 歷史의 世界 가튼 것들을 理解하게는 되지 못한다. 오늘의 現實主義가 내어 세우는 저 根本命題를 보아보라. 『現實이 觀念形態를 規定한다.』이러케 말할 때 이 現實이란 무엇인가. 이때의 現實이란 무론 現在의 世界의 意味를 가져야 하고 옮겨와 그들의 이른바 人間의 社會的 關係의 總體를 意味해야 한다. 그러나 現實主義가 어디까지든지 世界를 그 現實過程에 잇서서 把握하기를 가르치는 한에서 이 觀念의 地盤으로서의 現實이란 것도 결국은 그 자신 무단히 옮겨 가고 바꾸어는 現實이 되지 안혀서는 안된다. 生成으로서의 現實, 運動으로서의 現實, 現實은 진실로 한 순간 한 순간 자기를 建設하고 破壞하고 하는 움직이는 現實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現實이 본대 움직이는 現實이라는 것과 또 이 現實이 觀念形態를 規定한다는 것을 現實主義로 부터 배운다. 그런데 現實이 觀念形態를 規定한다는 見解 그 自體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만해도 그 자신 現實은 아니다. 아무리 고집 잇는 現實主義者이기로서니 한 개의 見解를 가르쳐 그대로 곧 自然이요, 物質이 된다고 우길 길이 잇슬까. 오늘의 現實主義의 根本立場을 表明하는 이 見解 自體가 위선 그들의 이른바 觀念形態의 意味를 가진다. 現實이 본대 옮겨 가는 現實이요. 觀念形態가 모두 그 地盤인 現實의 反映인

한에서 現實이 觀念을 規定 한다는 見解 마저 그 자신 現實의 規定을 바
야 하고, 또 그 地盤으로서 現實과 함께 본대 받고 있는 現實에 대한 받고
있는 見解가 되어야한다. 現實主義가 實在를 現在의 世界를 그 生成에 잇서
서 省察한 것은 조왔다. 또 觀念에 대한 現實 主觀에 대한 客觀을 反省하고
主張한 것은 조왔다. 그러나 現實主義는 根源的 實在로서 物質을 내세우는데
서 한 개의 形而上學에 떨어지고 모두를 因果性的 世界에 잇서서뿐 보려는
데서 구차스러운 自然主義에 붓잡힌다.

哲學은 가장 直接的인 事實에서 出發해야 한다. 우리들은 내가 살아 가고
잇슴을 안다. 내가 存在 속에서 자기를 人間으로 限定하고 잇슴을 안다. 그
런데 이 人間이란 무엇인고. 世界는 무론 人間에 그쳐서는 안된다. 眞實한
世界는 人間을 그 속에 가진 世界가 되어야한다. 客觀이 主觀에 잇서서 構成
된다고 보는 『칸트』的 觀念論, 自然을 精神의 自己疏外로 보는 『헤겔』
的 理性主義에 우리들은 反對한다.

그러나 客觀이나 自然은 어디까지던지 人間으로 더불어 交渉하는 意味를
가져야 한다. 人間의 思惟가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고 人間의 行動이 거기에
부닥치지 않는 世界란 것이 잇을 것인가. 世界는 언제나 人間을 그 속에 가
진 또 人間에게 잇서서 發見 되는 世界의 意味는 가진다. 우리들은 무론 人
間이 그 속에서 움죽이지 않는 自然, 人間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自然을
생각할 수는 잇다. 그러나 이 人間을 빼여 노흔 自然은 人間에게 마주서는
自然은 아니다. 主體로서의 人間에 대하여 자기를 客體로 限定하는 自然은
아니다. 이 『어두운』 自然이 『외로운』 自然은 아직 眞實한 自然이 아니매 말
하자면 前自然 前世界 가튼 意味를 가진다. 이리므로 人間을 묻는 것은 人間
을 물으면서 겸하여 自然을 묻는 것이 된다. 人間을 묻고 自然을 묻고 이리
하여 마침내 人間과 自然을 그 속에 가지는 生의 世界, 存在의 世界를 묻는
것이 된다. 『칸트』는 일직 어떤 著書속 에서 『人間은 무엇을 알 수 잇는
가. 人間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人間은 무엇을 바랄 수 잇는가. 人間이란
무엇인가.』의 네 가지 무름을 말했다. 그리고 이 넷 속에서 마즈막 무름인
『人間이란 무엇인가』가 아페 무름의 地盤이 되는 가장 根源的인 것이라고
했다.

人間을 묻는 것은 그대로 世界를 묻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存在 및 그 世
界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내려 왔다. 存在를 생각하고 神을 생각하
고 理性과 自然을 생각하고 自我와 精神을 생각하고. 이리하여 文化의 아득
한 領野에 벗쳐 여러 모양의 見解가 만흔 때, 만흔 곳, 또 만흔 사람들에게
잇서서 主張된다. 이제 이 하고만흔 見解와 主張이 그 밋바닥에 두 개의 論

理, 觀念論과 現實主義를 가진다고 하면 人間의 오랜 思惟, 또 여러 갈래의 思惟는 진실로 이 두 줄기의 源流에 잇서서 構成 또 表現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이 觀念論이나 現實主義는 기실 그 자신 人間의 한 개 思惟態度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므로 人間의 가지는 一切의 觀念의 世界는 그 地盤인 觀念論과 現實主義에로 歸還되고, 다시 이 觀念論, 現實主義는 또 그 地盤인 『人間에 對한 理解』에로 歸還된다. 이 『人間에 對한 理解』는 이제 비로소 『論理』를 벗어나 『現實』에 만난다. 『人間에 對한 理解』를 規定 하는 것은 한 개 現實로서의 人間의 實存이 되어야 한다. 이 이른바 人間의 現存이란 무엇인가. 人間은 무엇에 잇서서 自己를 한 개의 現實的인 存在로 限定 또 主張하게 되는가.